

농촌진흥청·지방정부 협업, 한우 청년농 사료비 부담 낮췄다

- 국립축산과학원, 농가 맞춤형 배합비 제공·기술 전수 거점농장 연계
-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장비 지원, 민간 거점농장 제조 기술 전수
- 영월 농장,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도입 후 사료비 약 17% 절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과 협력해 한우 청년농업인에게 장비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지원한 결과,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맞춤형 배합비를 제공하고 기술 전수 거점농장을 통해 사료 제조 기술을 전수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사료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했다.

한우 260마리를 사육하는 영월 김우정 농장은 그동안 사료를 외부에서 구매해 사용하면서 사료비 부담이 컸으며, 지난해 출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의 한우 사육 현황과 기존 사료의 원료 구성, 출하 성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활용한 맞춤형 배합비를 제시하고, 배합비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과 한우의 성장 단계별 사료 제조·급여 방법을 교육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운영하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전수 거점농장도 기술 지원에 참여했다. 거점농장 중 하나인 석청 농장 백석환 대표는 원료 구매와 보관, 혼합 순서, 급여량 조절 등 44년간 쌓은 경험과 기술을 김우정 대표에게 전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지방비를 지원해 김우정 농장에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배합기와 급여기를 보급했다.

김우정 농장은 올해 3월부터 개선된 배합비로 만든 자가 섬유질배합사료를 약 6개월간 한우에게 먹인 결과, 거세우 한 마리당 사료비가 도입 전 404만 원에서 도입 후 337만 원으로 줄어 약 17% 절감했다.

올해 출하한 한우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최고 등급인 투플러스(1⁺⁺) 등급, 나머지 2마리는 원플러스(1⁺) 등급을 받았다. 투플러스(1⁺⁺) 등급 출현율은 지난해 0%에서 올해 60%로, 원플러스(1⁺) 등급 이상 출현율은 46%에서 100%로 높아졌다. 다만, 출하 마릿수가 적고 적용 기간이 짧아 출하 성적은 앞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김원태 소장은 “이번 사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맞춤형 기술과 기술 전수 거점농장의 경험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의 장비 지원이 더해진 협업 사례”라며 “한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농가 여건에 맞는 배합비가 실제 사료 제조와 급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기술 전수 거점농장을 지속해서 확대해 한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축산업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내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윤호백 (033-330-0601)
		담당자	연구관	백열창 (033-330-0612)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관	박현경 (063-238-7205)

□ 기관별 역할 및 협력 내용

- (영월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자가 TMR 배합기 지원
 - (목적) 한우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지원내용) TMR 배합기 및 급여기 지원
- (한우자가 TMR 기술전수 거점농장): 자가 TMR 배합기술 지원
 - (목적) 자가 TMR 확산을 위해서는 배합비뿐만 아니라 원료 구입, 사료 제조 방법, 노하우 등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장 운영
-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자가 TMR 배합비 기술지원
 - (목적)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TMR 기술 개발 및 보급
 - (내용) 농가의 사양성적과 사료 배합비를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우 자가 TMR 배합비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 농가 여건에 맞는 배합비 작성 지원
 - (지원방식) 한우 자가 TMR 배합비 프로그램을 활용한 배합비 작성지원

□ 관련 사진

